

# ‘소외된 곳’서 ‘소중한 곳’으로... 남도의 섬은 ‘보물창고’



관매도의 해변. 깨끗한 백사장과 탁 트인 시야, 푸른빛의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전남에서 거문도, 가거도에 이어 3번째로 불을 밝힌 하조도 등대. 조도 앞바다를 인천, 목포 등지에서 여수, 제주를 오가는 선박들이 거쳐간다.



관매도의 곰솔숲. 소나무 하나하나에 번호가 붙어있다.



도리산전망대에 오르면 마치 새떼처럼 조도 근처에 몰려 있는 진도의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다. 베트남 하롱베이와도 비견될 정도의 절경이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패턴, 대리석혼합, 풍나무, 스톤패턴, 석재패턴, 석재인양(에어월드)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블루오션’ 다도해 <39·끝>

###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진도편-관매도·조도·가사도

진도(363.94㎢)는 제주도(1847㎢), 거제도(378.14㎢)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다. 전남의 서남쪽 끝에 자리하면서 교통편이 열악했던 과거 오랜기간 그 진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유배지, 항쟁(삼별초)의 거점, 전쟁(후삼국)이나 침략(왜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삼별초의 근거지인 용장산성(사적 제126호)과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남도진성(사적 제127호)이 그 근거다.

소외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외부의 ‘자극’은 자연스럽게 진도에 스며들었다.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진도 들노래(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진도 입회굿(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등이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천연기념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동개(천연기념물 제53호)와 진연의 백조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의신면의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입회면의 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111호) 등이 있다. 조선시대 남화(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 선생(1808~1893)이 말년을 보냈던 화실 ‘운림산방’, 진도와 모도 사이의 ‘신비의 바닷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서부해안도로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세랑나초’ 등 한번쯤은 봐야할 자원들이 널려 있다.

이외에도 유인도 45개, 무인도 211개 등 무려 256개의 섬이 진도 주변에 흠뻑 퍼져 있다. 이들 섬을 포함한 진도의 해안선은 602.95km로, 전남 전체의 10분의 1를 차지할 정도다. 이밖에도 진도군은 진동개, 구기자, 돌미역을 3보(寶), 진도민요, 서화, 홍주 등을 3락(樂)으로 지정해두고 있다.

‘섬’이었던 진도는 1984년 10월 18일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에서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까지 길이 484m의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 cable-stayed girder bridge) 진도대교가 놓이면서 거센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젊은층의 ‘탈출 러시’와 의

지인의 ‘방문 러시’가 각각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치는 울돌목에 다리를 놓기 위해 양쪽 끝에 기둥을 세우고 강철선을 늘어뜨려 매다는 공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나 2005년 12월 15일 제2진도대교가 바로 옆에 놓이면서 ‘섬’보다는 ‘물의 외진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두 개의 다리는 쌍둥이 사장교로도 유명하다.

지난 11월 4일 물이나 다름 없는 진도에서 관매도로 향했다. 조도를 들렀다가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관매도는 깨끗한 해변, 곰돌, 하늘다리, 벼라바위 등 다양한 자원을 잇는 탐방로가 있고, 습지와 천연기념물 212호인 후박나무 2그루와 참나무 3그루, 곰솔숲 등이 섬에 가득하다. 아무 생각없이 여기저기를 거닐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 섬이다.

철부선이 하루 2번, 성수기인 여름에는 5~6번 왕복하는데, 몇 년 전 ‘1박2일’에 소개되면서 진도군청 직원이 모두 나와 팽목항에서 주차 안내를 할 정도로 붐볐다고 한다. 최근에서야 옛 모습을 되찾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그 같은 ‘대박’은 거부하고 있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무질서와 쓰레기가 넘쳐났다고 주민들은 그 때를 회상했다.

매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관매도에 매화는 없다. 해당화도 피었지만, 약재가 된다고 하니 모두 뽑혀나갔다. 다도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화와 해당화를 ‘역지 식재’했으나 얼마 못 가 시들해졌다.

섬 전체는 조용했다. 경로당은 문에 거미줄이 칭칭 감겨있을 정도로 드나든 지 오래 됐으며, 밭 이곳저곳에는 홀로 나와 일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민박집에서 여성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찾았더니 광장에서 놀러온 동네아줌마 5인방이 막걸리 파티중이었다. 그녀들은 “소개로 오게 됐는데 너무 좋아 다시 찾았다”며 “고즈넉한 곳”이라고 관매도를 평했다.

관매도에 거주하는 150가구 243명을 보살피고 있는 보건지소의 박미정(여·34)씨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절반이 넘는 124명”이라며 “응급환자보다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에 시달리시는 주민들이 많다”고 걱정했다.

일정상 오후 1시 30분 철부선을 타고 조도로 향했다. 이 철부선은 목포항~가사도~하조도~창유~상조도~나배도~관사도~소마도~대마도~관매도~동거차도~서거차도~상하죽도~광도~맹골도~죽도~서거차도를 다니는 그야말로 4시간짜리 ‘완행’이다. 관매도에서 눈 앞에

보이는 하조도를 가는데 1시간40분이 걸렸다. 1997년 4월 30일 개통된 조도대교로 상조도와 하조도는 하나가 됐지만, 이 다리를 오가는 차량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 그 만큼 양쪽을 오가는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조도의 등대는 1909년 2월 1일 첫 불을 밝혔는데, 거문도(1905.04.12), 가거도(1907.12.01)에 이어 이 지역에서는 3번째로 들어섰다. 조도리는 명칭은 섬이 새때처럼 많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인데, 도리산 전망대에 오르면 그야말로 ‘섬들의 향연’을 관찰할 수 있다.

마치 베트남의 세계적 관광지 하롱베이를 보고 있다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전망대 사방으로 옥도, 시야도, 과도, 하갈도, 장도, 성남도, 죽지도, 기사도, 마도, 대마도, 병풍도, 나배도, 소마도, 맹골도, 서거차도, 관산도 등이 한 눈에 들어왔다.

조도대교 이외에 하조도와 라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사도는 11월 5일 오전 찾았다. 지난 2011년부터 출장소장을 맡고 있는 임병태(57·6급)씨가 마중을 나왔다. 그는 지역 명문 목포고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서울구로공단에서 시급 280원짜리 공원으로 지내다 2년 뒤 부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임 소장은 이후 지역교류를 통해 무안을 거쳐 진도 가사도에서 5년째 근무중이다.

납석, 옥, 금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가사도는 곳곳이 광산으로 파헤쳐졌거나 공사가 있었다. 생태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시끄럽게 좁은 도로를 오가고 있었다. 가사도에 5개의 유인도가 속해 있는데, 그 모양이 독특해 각각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광대도(사자섬), 양덕도(발가락섬), 주지도(손가락섬) 등이 대표적이다. 무허가인 돌목해수욕장, 노승봉도 자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